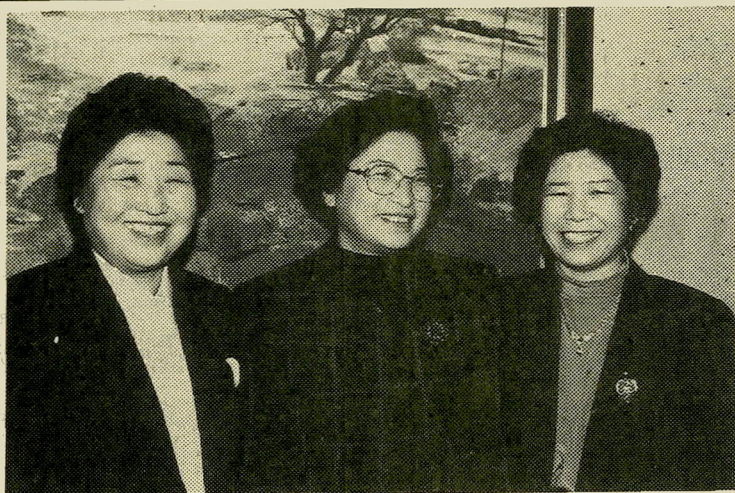


“男性장관보다 더 잘할 자신있다”

女性장관 3인의 포부



새 정부에 입각한 세명의 여성장관. 왼쪽부터
朴瑯實보사부 權英宇정무제2 黃山城환경처장관。

27일의 조각에서 보건
사회부 환경처 정무제2
장관인 3명의 여성장관
이 탄천한 것에 대해 여
성계는『대통령이 여성에
대한 공약을 성실히 이
행한 획기적인 조치』라는
환영성명을 낼 정도로 크
게 반기는 분위기다.

여성계 크게 환영... “함께 돕겠다”

한국여성인권자연맹의
申樂均회장이『여사상처
음인 여성장관 3명의 기
용이 잘한 일이었다는 평
가를 받을 수 있는 특 힘
을 함께 이들을 도와야 한
다는 것이 여성계의 대체
적인 의견』이라고 전했다.
또 이들의 입부능력에
따라 앞으로의 개각에서
도 비슷한 수준으로 여

다면서『3명의 서로 원
군이 되어 남성장관보다
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도
록 노력하겠다』고 말했다.
정무2실 조경관, 여성
개발원 원찬을을 거치면
서 일관되게 여성문제만
을 다루는 그는 정무2
실의 실무자들이『최고
책임자가 왔다』고 환영
할만큼 여성정책의 이론

은 상신들이므로 현실문제
를 얻는 감각이 뛰어나
환경정책에 대한 신선한
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
로 기대되고 있다.
아무튼 이들의 활발한
국정활동으로『여성장관』
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
은 분위기가 형성되는
것이 여성계의 바람이
다. <金惠暎>

성이 기용될 가능성이 커
「여성장관」에 대한 관심
과 기대는 그 어느 때
보다도 높을 수밖에 없다.
이에 대해 權英宇정무
제2장관은『이번 인사
로 여성들의 정치참여확
대등 여성계의 요구가
상당부분 해결됐다고 본

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
가도 많아졌다.
朴瑯實 보사부장관은
행정경험이 풍부해 복잡
한 보사행정을 제대로
소화할지 우려의 소리도
있지만 한국여의사회 회
장 해전에반 한국의사연
맹이 사들 활발한 사회
활동경력에 이를 보충할
수 있으리라는 평가다.
변호사 출신이며『여론
광장』등 방송프로그램의
사회자로 이름난 黃山城
환경처장관은 환경문제에
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
진다는 평. 그러나 폭넓